

모두 행복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과제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2022년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은 5월 5일, 일본의 한 매체¹⁾가 한국의 어린이 비율이 일본과 함께 세계 최저이며, 한국의 어린이 감소율이 일본보다 훨씬 가팔라 머지않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어린이 인구 세계 최저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보도하였다. 이어 통계청 발표²⁾에서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보다 8.6% 줄고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전국 시도 전체로 확산된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21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대 다수는 결혼 후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여기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유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많은 기회 상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아 앞서 발표된 미래예상 시나리오가 빗나가지 않을 상황이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 동시에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부모라면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긴 노동시간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순간 아이를 양육하면서 갖는 고단함과 죄책감을 당연한 듯 안고 살아야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아이를 돌보는 비중이 높아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을 때의 죄책감과 경력단절의 위협을 느끼며 고민과 갈등을 반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국민들의 호소에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며 만들어내는 아동돌봄 정책은 저출생 정책과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발전되어 왔고 그 정책 중 하나가 아이돌봄지원사업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에게 1:1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이의 복지 증진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작된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일상적인 돌봄과 함께 신속하게 제공되고 있다. 현재 지속

1) 매일신문(22.5.5.) '비혼·딩크가 대세니까...' 우리나라 어린이 비율은 세계 최저

2) 통계청 발표(2022.5.26.) 2020~2050년 장래인구추계 시도 편.

적인 서비스 개선 등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관보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틈새 돌봄의 순간을 보완해주고 영아나 질병에 감염된 아이를 1:1로 밀착하여 돌봐주는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창구가 되고 있다. 더불어 취약가구 대상에게 서비스 비용을 차등화하고 우선 지원 대상 선정 등으로 적극 지원하는 점과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 15년간 아이 돌봄 영역에서 기여한 바가 크며, 육아의 경험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돌봄노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처우는 주요 사회 이슈가 되었다.

이런 정책의 시행과 논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 돌봄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정부의 방안은 무엇일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세 번째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조성을 위해 촘촘한 아동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고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서비스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환경 분석을 통해 수요에 맞는 정책 기획과 정부 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돌봄노동의 가치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실현되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이용 형태를 분석하여 돌봄 연계의 미스매칭을 줄이고, 돌보미의 자격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돌봄의 질과 보상이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의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관리 감독 책임을 높이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를 넘어 미래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동 돌봄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과 돌봄영역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호소하는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공적 돌봄으로 자립매김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